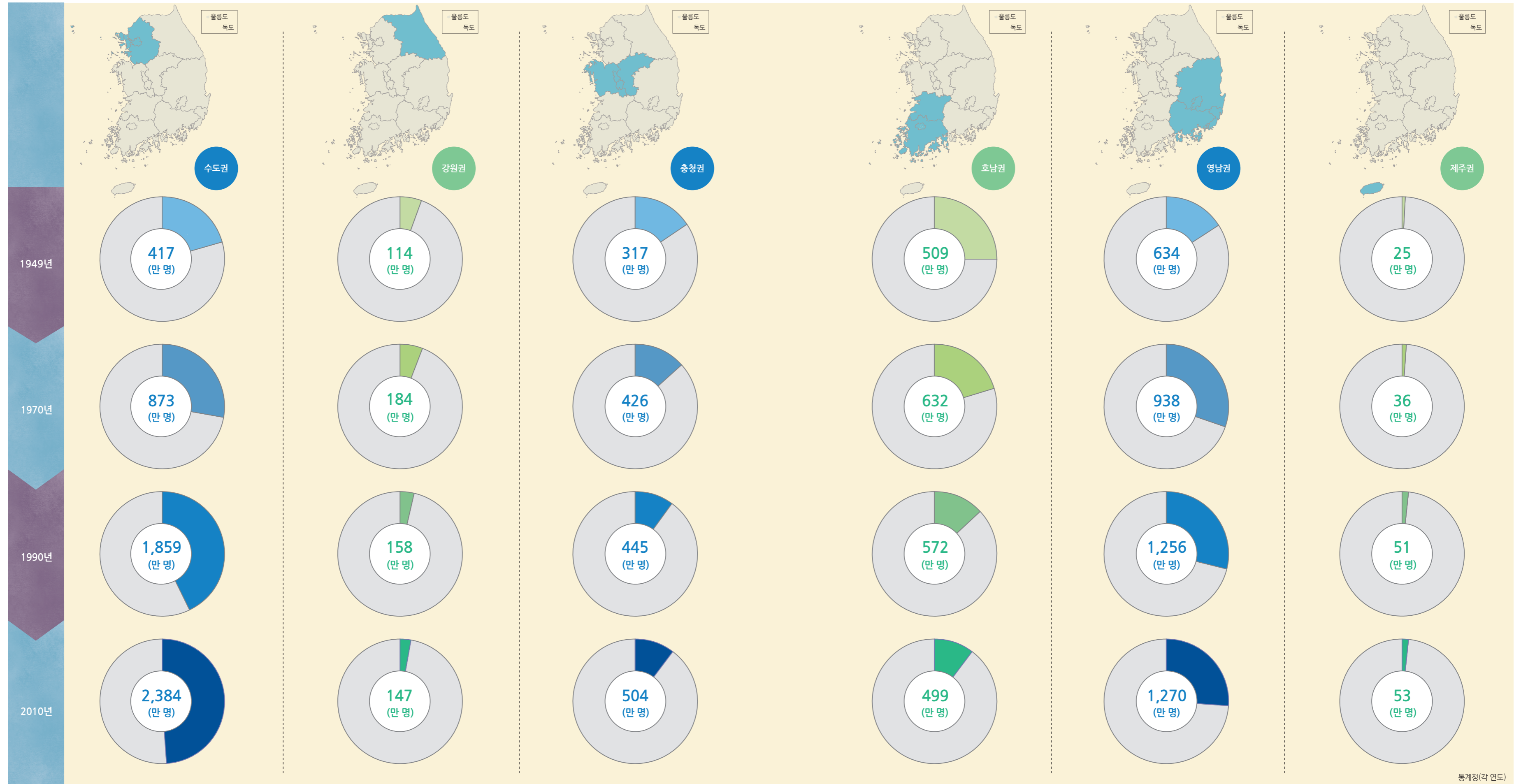


# 우리나라 권역별 인구 현황

권역별 인구



통계청(각 연도)

자료는 시대별, 지역별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가

많고 다양한 문화 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면서 만들어진 결과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인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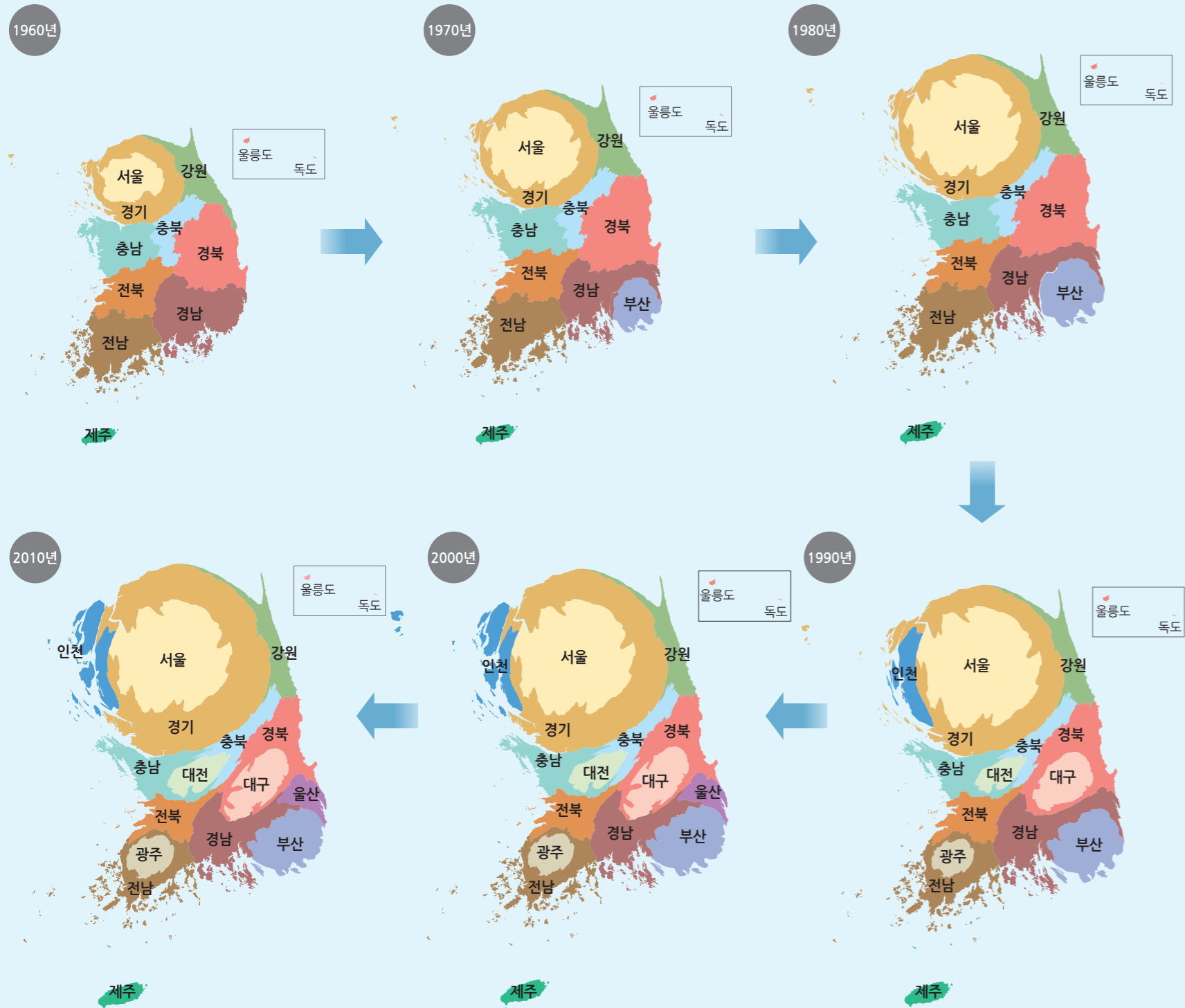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다.

# 우리나라 인구 성장과 출산율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연도	전국 인구(명)	지도 상대적 크기 (% , 1960년 기준)
1960년	24,989,241	100
1970년	30,882,386	111.2
1980년	37,436,315	122.4
1990년	43,410,899	131.8
2000년	46,136,101	135.9
2010년	48,580,293	139.4

\* 1960년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 구역의 크기를 인구에 비례하여 나타낸 지도로, 인구에 따른 지도의 상대적 크기는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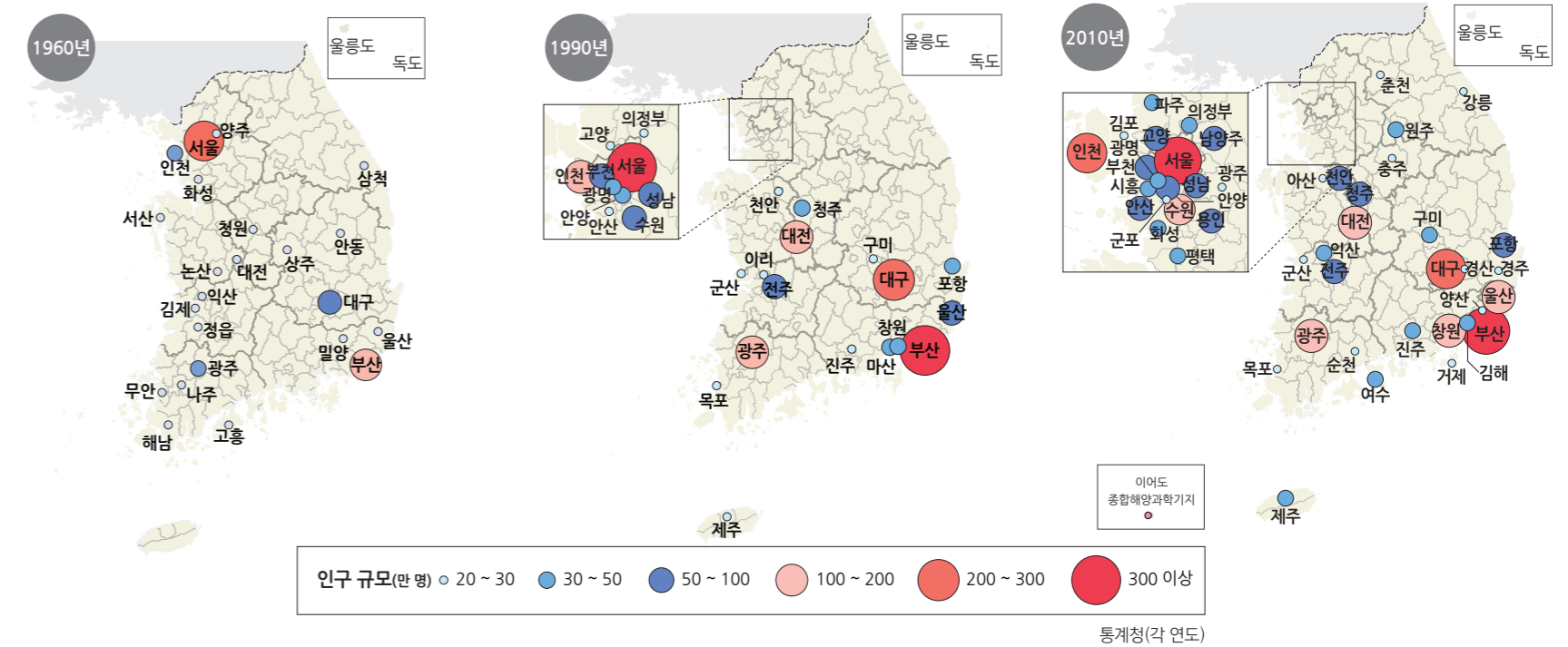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여성은 평균 3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도록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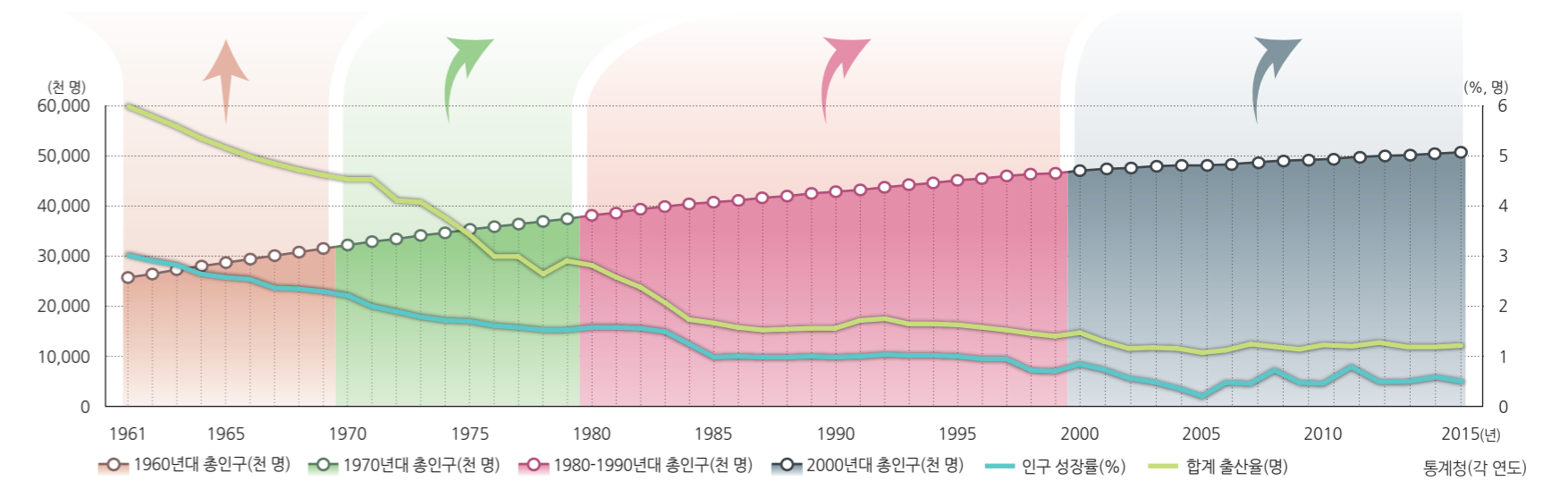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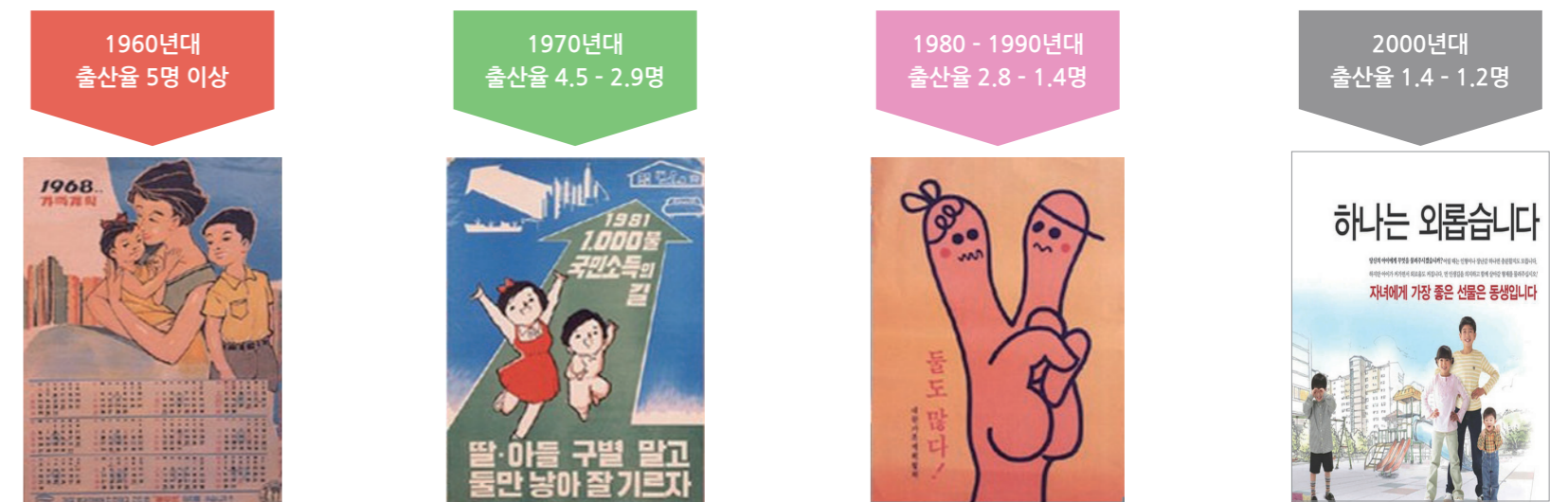
정책을 실시하였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국가에 이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2명의 아이도 낳지 않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출산율 변화와 인구 정책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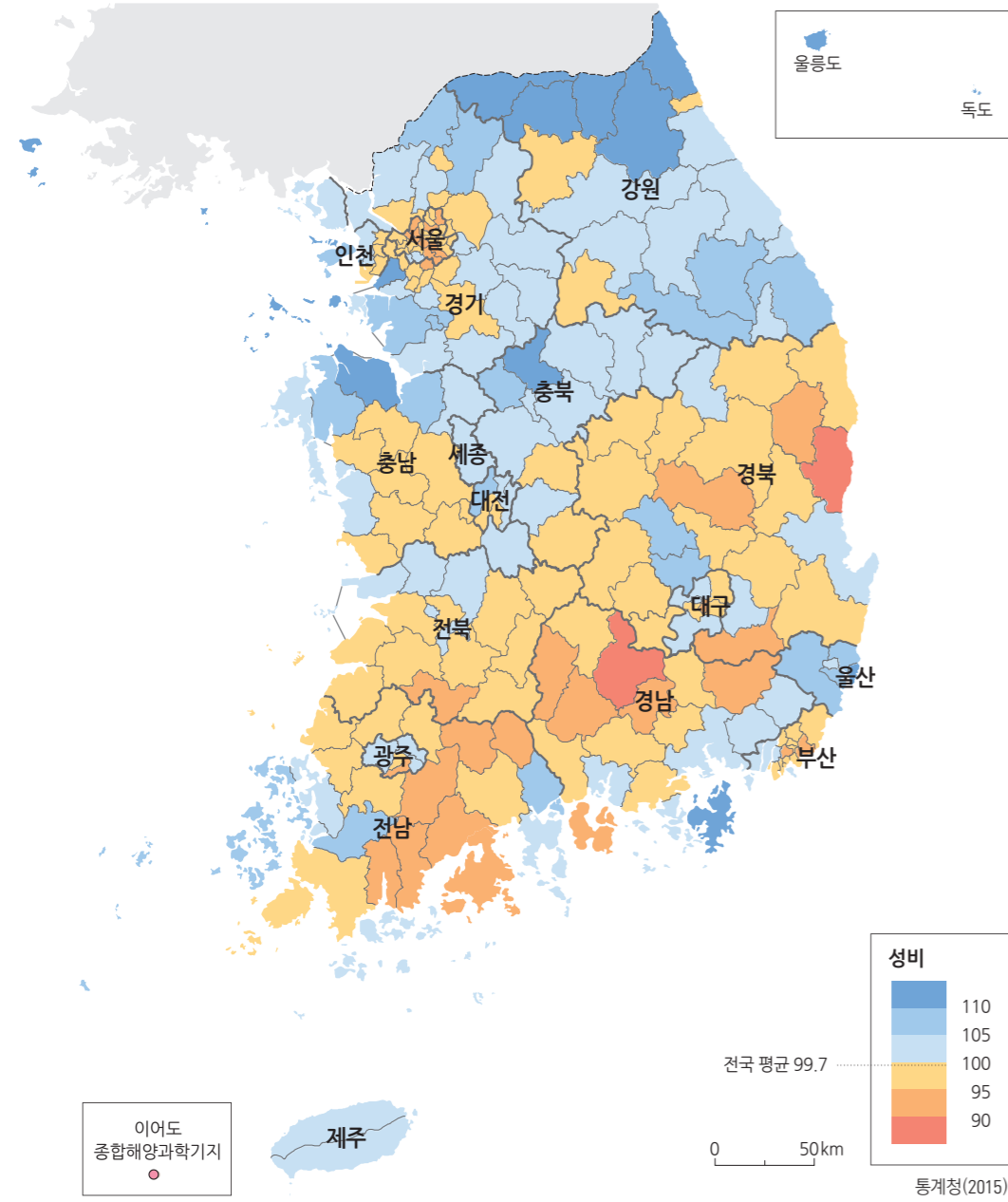
경제 상황이 나아진 데 비해 어린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아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명의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세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0년에 수도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1/5 정도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의 광역시 가운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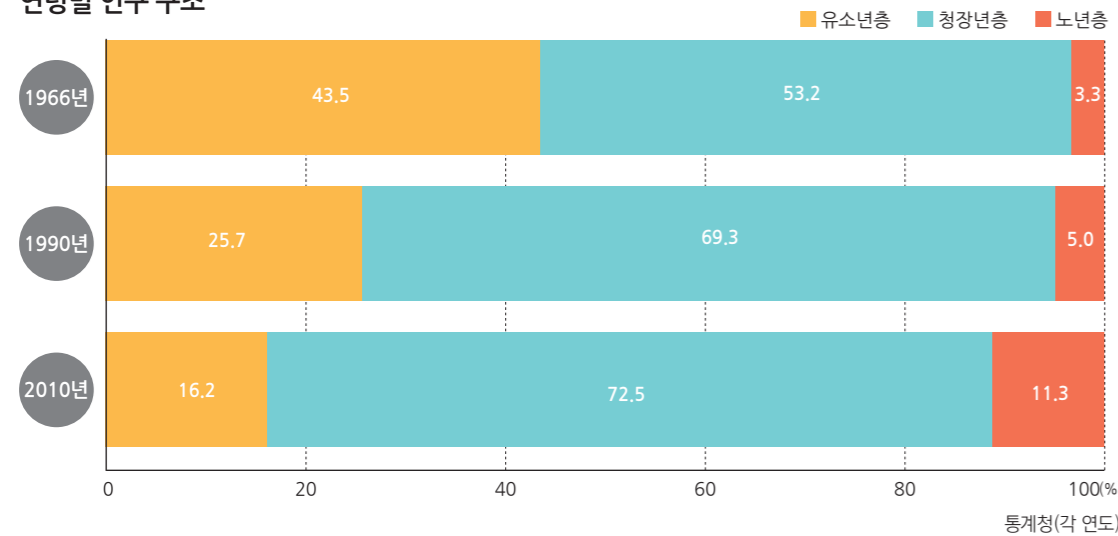
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의 집중 현상을 정리하면, 대략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모여 살고 있는 셈이다.

# 우리나라 인구 구조

성비



연령별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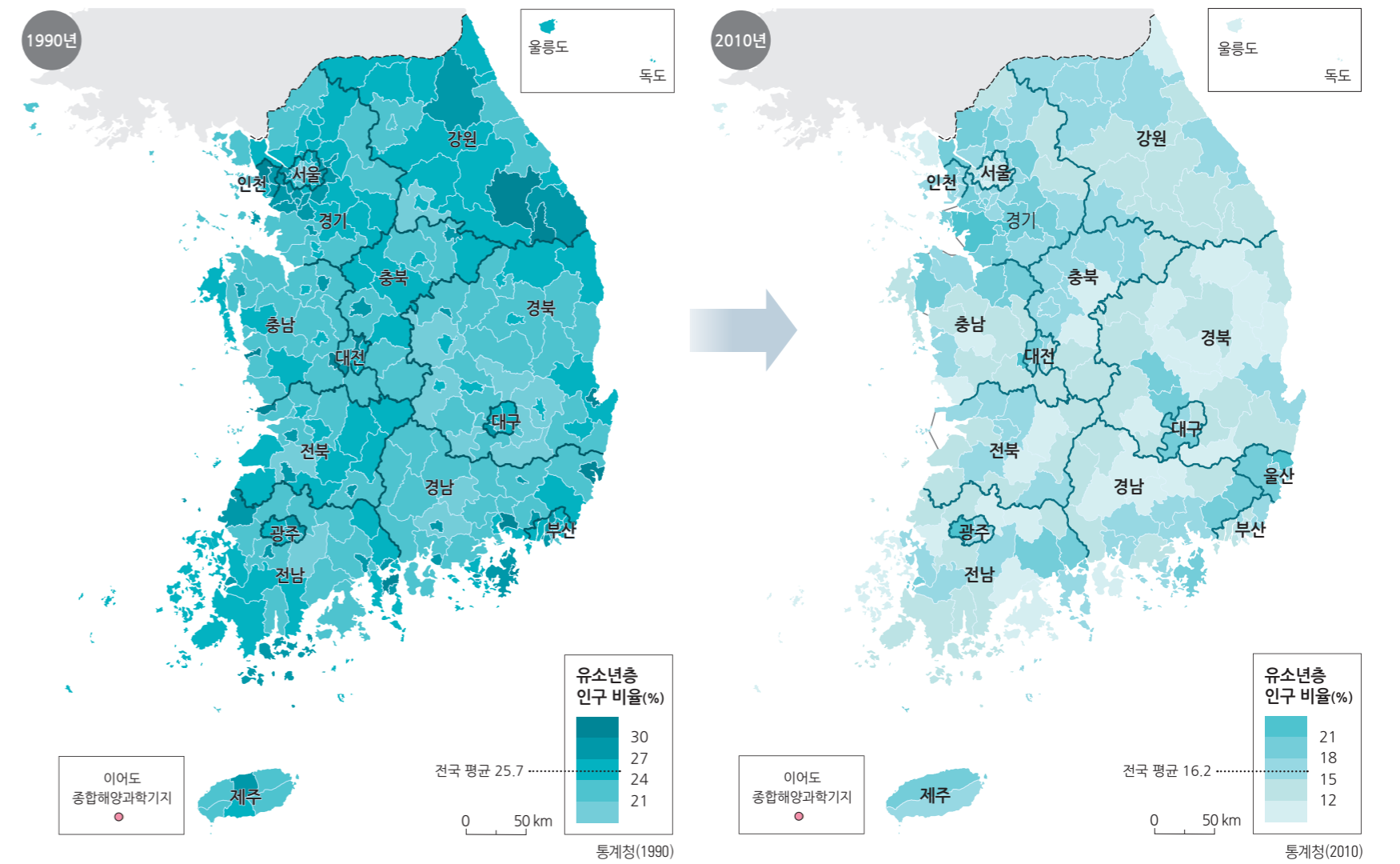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성비)가 약 99.7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옆의 지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지역은 붉은 색 계열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지역은 청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다. 과거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1-2명의 아이만 낳게 되면서 남녀 간의 성비가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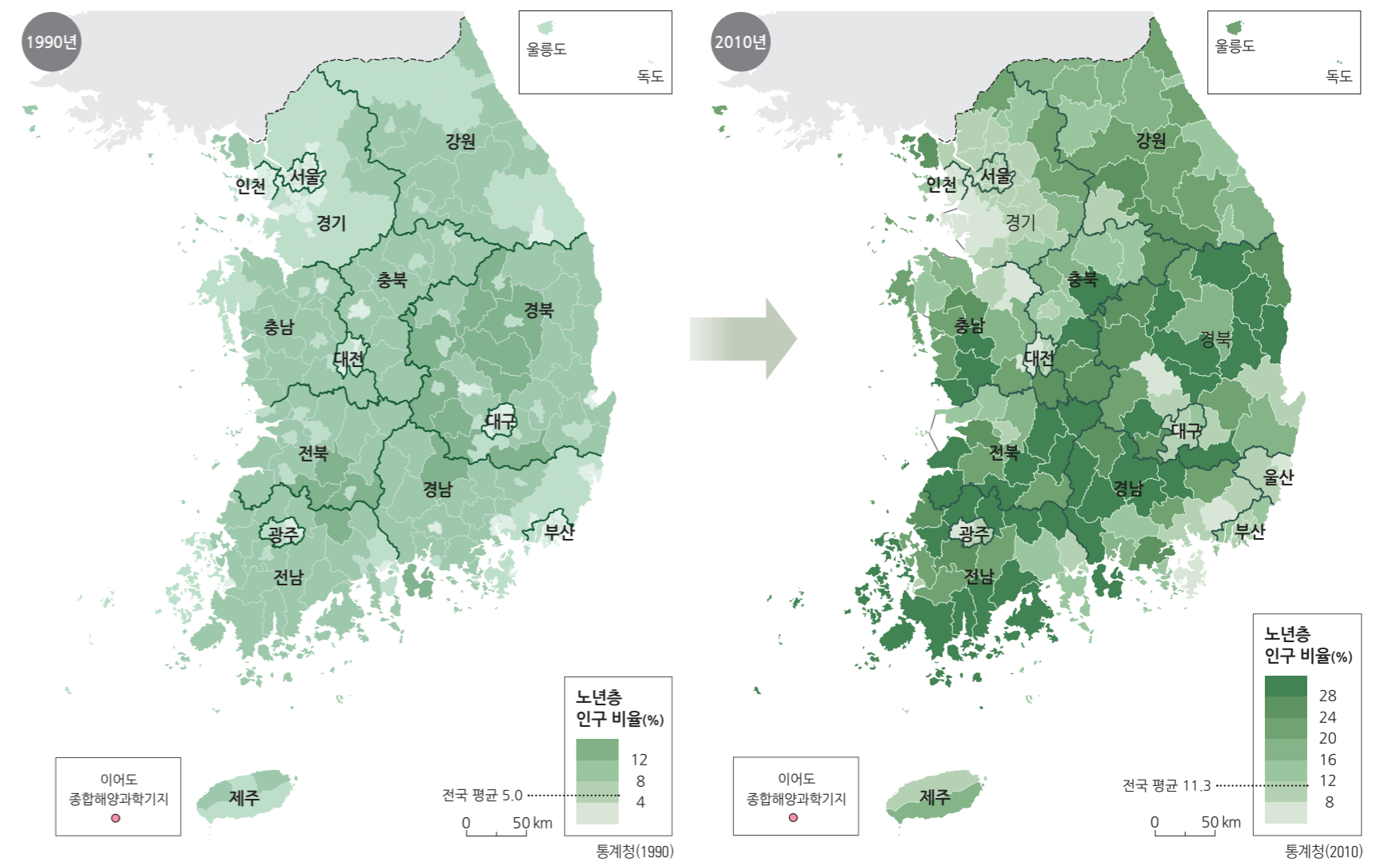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지역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 이 같은 지역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다. 특히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많다. 반면에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공장이 많거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1990년과 2010년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 중에서 유소년층(0~14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노년층(65세 이상)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영양 상태와 의료 시설 등이 좋아지면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생활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여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청장년층(15세~64세)과 노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났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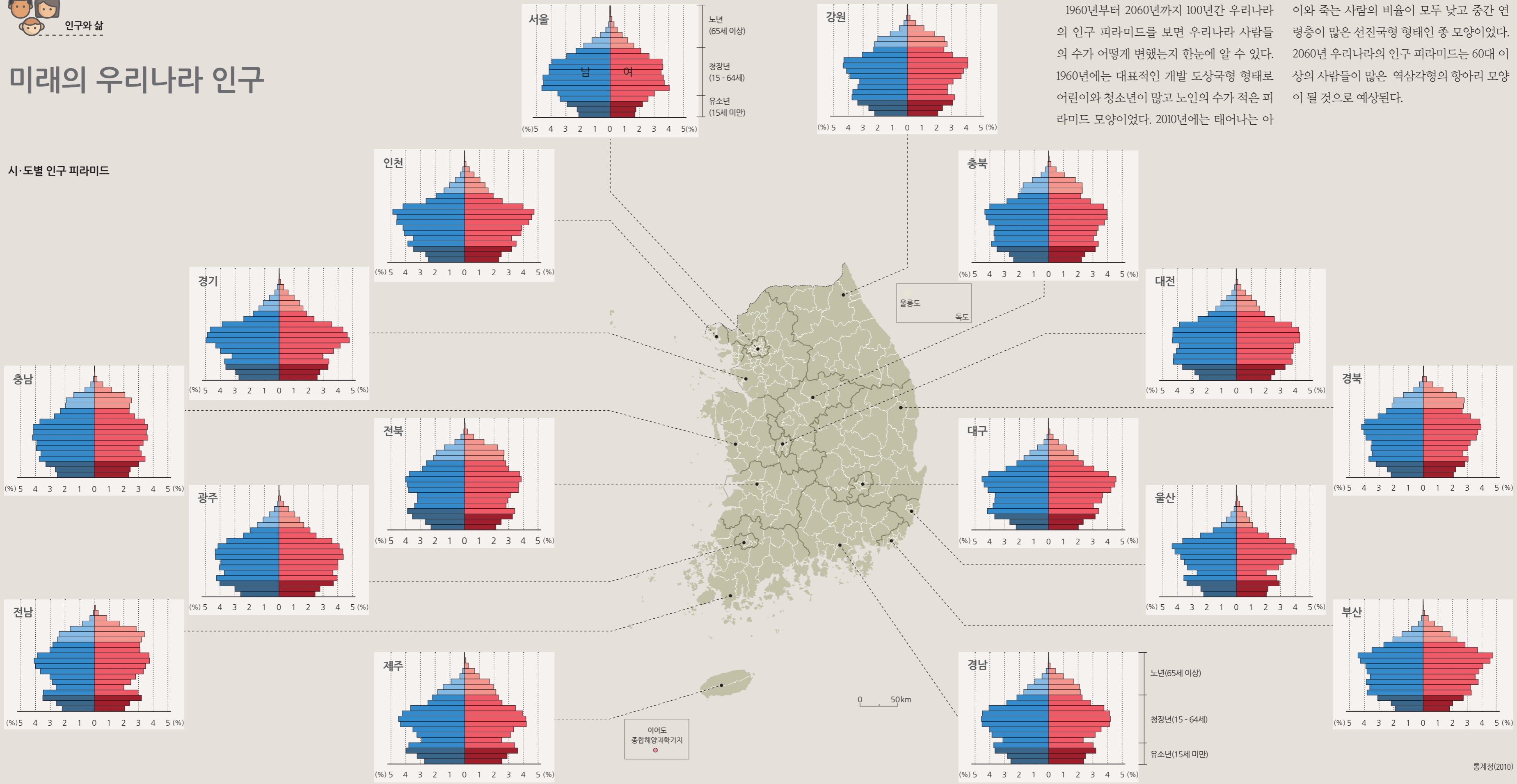


노년층 인구 비율



#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

## 시·도별 인구 피라미드



1960년부터 2060년까지 10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960년에는 대표적인 개발 도상국형 형태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고 노인의 수가 적은 피라미드 모양이었다. 2010년에는 태어나는 아

이와 죽는 사람의 비율이 모두 낮고 중간 연령층이 많은 선진국형 형태인 종 모양이었다. 2060년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역삼각형의 항아리 모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0년간 인구 피라미드 변화

